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7월 9일(금)
...(음력 5월 30일)...
Пятница
9 июля 2021г.
№ 27 (1194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의 두 번째 일요일 러시아에서 어민의 날을 기념한다. 사할린에는 수산업은 아주 중요한 경제 분야다.

(사할린 주정부 사이트에서)

친애하는 사할린 및 쿠릴 주민 여러분!

어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날을 사할린주에서는 수산업 전문가, 낚시 애호가와 많은 현지 수산 식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모두가 기념합니다. 사할린의 수산 기업들은 신선한 생선에서부터 통조림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로 국내 다른 지역들의 주민들과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중 생물 어획과 연안 가공생산업의 잠재력에 있어 우리는 극동 지역에서 상위 3위 안에 있습니다.

사할린주의 종합 양어장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의 지원 속에 수산업체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며, 연어 양어장이 건설되고, 선박을 복구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수산업체들은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 생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선' 기획을 실현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덕에 사할린 지역의 전 주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 낚시 애호가들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4개 장소에서 자유로이 송어 3마리까지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한 가운데 낚시대만 아니라 그물로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의 식탁에 맛있는 생선과 해산물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월척을 낚으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미슈스틴, 80%~90%가 접종해야 한다

러시아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인구의 총 80~90%가 코로나19에 면역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과 보건부에 러시아인에 대한 백신 모델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전에 전문가들은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쯤에 60~70%의 국민들에게서 항체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 인구 백신접종의 전염병역학 모델을 활성화하여, 최소 80~90%를 백신화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고, 돌연변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에서 온 주민에게 재접종으로 보건부와 소비자보호감독청은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하-하바롭스크 간 항공편, 매일 편성 전망

오하와 하바롭스크 간 항공편이 매일 편성될 전망이다. 일찍이 사할린 북부 중심지의 주민들이 휴가 기간에 이 노선을 이용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7월 30일부터는 오하와 대륙 간 운항이 증편된다.

"7월 초부터 일주일에 2회-4회 운항으로 증편됐다. 매일 이 노선의 운항이 이뤄져 반갑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전했다. 운항 횟수 증가는 연방 정부의 추가 예산으로 이뤄졌다. 이 덕분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새로운 노선과 적절한 비용으로 연방 도시들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지역 간 항공 운항 보조금 지급 계획안으로 20개 노선의 항공편 운항이 전망되는 가운데 그중 오하-하바롭스크, 노골리키-하바롭스크, 샤호초르스크-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유즈노사할린스크-콤포몰스크 나 아무레, 유즈노사할린스크-소베트스카야 가완, 유즈노사할린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 노선이 있다.

항공권 이용료는 편도로 오하-하바롭스크간 5천800루블리, 노골리키-하바롭스크 4천500루블리, 샤호초르스크-하바롭스크 4천600루블리이며, 유즈노사할린스크-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는 5천600루블리, 유즈노사할린스크-소베트스카야 가완이 2천200루블리, 유즈노사할린스크-콤포몰스크 나 아무레는 4천600루블리, 유즈노사할린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는 9천800루블리이다.

단신

사할린 최저생활비 1만6천252루블리까지 인상

인구노동고용청이 반부패 사이트에 2022년 사할린 지역의 최저생활비 규정에 대한 결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인상이 계획되었다. 2021년 최저생활비는 15,906루블리이고, 2022년에는 16,252루블리로 규정할 계획이다. 근로 연령의 주민들에게는 16,932루블리에서 17,715루블리로 인상, 연금 수급자에게는 13,604루블리에서 13,977루블리로 인상, 아동에게는 변동 없이 17,300루블리로 규정됐다.

연방 표준의 변동으로 의회 의원들은 사할린의 최저 생활비가 축소될 거라 우려했으나 우려한 바는 없었다. 이번 주에 국내 최저 생활비는 11,950루블리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하는 연방의 의도가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1일까지 문서 검토 후 표준 규정안이 채택되면 지방 정부 총재의 서명 후 발표할 예정이다.

성어기 초부터 사할린주에서 연어 1천414톤 어획

사할린주의 수산업체들이 태평양 연어 1천413.618톤 어획했다.

사할린 지역 수산청에 따르면 지역 수산업체들이 송어 874.378톤, 연어 439.02톤, 네르카 100.22톤을 어획했다. 모든 연송어류는 세웨로-쿠릴스크 해역과 캄차트카-쿠릴 해역의 업체들이 어획했다.

올해 사할린주의 태평양 연어 권장 어획량은 4만498.139톤이다.

사할린, 7월 7일 코로나19 상태

7월 7일 현재 1,194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669명이 입원 치료하고 있다. 사망자 77명, 병원의 입원 가능한 병상은 154개, 감염자는 79명, 2,135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총 120,180명이 접종한 상태이다.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7.2%이다. 백신 재고는 23,993회분 남아있다. 현재,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감염을 겪은 사람들 중 약 30,000명이 면역상태이다. 사할린주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76,596명의 주민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7월 23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общаем, что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газеты выйдет 23 июля 2021 г.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한국교육원, 여름방학 문화교실 강좌 실시

여름방학 기간임에도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하계 문화·창작 강좌들이 개설되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현재 강사와 수강생들 사이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을 찾았다.

- 봄학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던 수강생들이 5월 말에 모두 방학을 맞았습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는, 교육원 시설을 비워두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과 7월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화교실 수업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주 토요일에 '한국문화체험'으로 '한지공예'와 '매듭공예'를 계획했어요. 6월에 2회, 7월에 3회 즉 5번 실시하기로 했는데, 6월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취소했고, 7월 3일(토) 한지공예 중급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한지공예 고급과정이나 매듭공예를 한두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국립대 임엘비라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전통공예를 준비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천년을 가는 한국 전통 한지(韓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실천해 보았습니다. 어버이날 기념으로 5월 8일에 이미 초급과정 한지공예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2세대, 3세대를 대상으로 6, 7월에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문화의 향기' 교실을 열었습니다. 영주 귀국하신, 현재 3개월 정도 사할린에 머무시는 허남훈 선생님께



수업을 부탁드렸는데 한국어 교원 경력이 있으셔서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수업 내용은 한국어 낱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어(漢字語)와 전통 시가(詩歌) 형식인 시조(時調), 그리고 역사적 인물-위인(偉人), 속담과 사자성어, 붓글씨 쓰기 등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 선생님의 제안으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8월에 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 수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수업은 9월 학기에는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남훈 선생님이 사할린에 오시는 12월 이후에는 또 허 선생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인, 러시아인 이웃들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 민속춤' 교실을 열었습니다. 4~6월 실시했던 '글 쓰는 사할린'처럼 '춤추는 사할린'으로 할까 하다가 함께 여러나라 민속음악으로 어울리자는 취지를 살려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속춤 수업은 지난 2020년 9월에도 4회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의 민속춤 교실은 1주일에 월, 목요일 2회 실시합니다. 한국춤, 유럽춤, 라인댄스, 러시아춤, 왈츠 등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춤을 연습하고 즐겁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한인 어르신뿐 아니라 러시아 현지 이웃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문화센터 강당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센터 건물 앞 야외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월요일(7월5일)에는 가가린 공원 호수 옆 풀밭에서 그 동안 연습한 민속춤을 함께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할린에서 잊을 수 없는 정경(情景)이자 추억(追憶)이 되었습니다.



7월 5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 호수 근처. 16명이 모인 가운데 <어울림 민속춤>강좌 펼쳐. 이날 수강생들은 한국춤 '어부놀이', '정든 그 노래' 등을 연습했다. (배순신 촬영)

글 쓰는 사할린'처럼 '춤추는 사할린'으로 할까 하다가 함께 여러나라 민속음악으로 어울리자는 취지를 살려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속춤 수업은 지난 2020년 9월에도 4회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의 민속춤 교실은 1주일에 월, 목요일 2회 실시합니다. 한국춤, 유럽춤, 라인댄스, 러시아춤, 왈츠 등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춤을 연습하고 즐겁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한인 어르신뿐 아니라 러시아 현지의 이웃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문화센터 강당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센터 건물 앞 야외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월요일(7월5일)에는 가가린 공원 호수 옆 풀밭에서 그 동안 연습한 민속춤을 함께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할린에서 잊을 수 없는 정경(情景)이자 추억(追憶)이 되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아리랑 양상방 박영자 단장님이 댄스 동작이나 의상 준비, 여러 가지 내용을 러시아어로 설명을 보충해 주십니다. 되도록이면 10곡에 3곡 정도는 한국 노래와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노래에 맞춘 춤을 함께 배워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제가 민속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예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9월 학기에는 목요일에만 주1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국문화의 향기 수업도 준비해야 해서요.

제가 7월 셋째 주말에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가야해서 그 주까지만 수업을 하고 이제 진짜 방학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현재 모두 백신을 맞으셨고, 이제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름방학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체계는 참 많은 추억을 주셨습니다. 참가하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주변 이웃들께 알려주시고 9월 학기에는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9월 학기에는 한국어는 예전대로 '한국어입문',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어린이 한국어1,2', '에트노스반'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은, 빅토리아 최 작가님의 '글쓰는 사할린', 저와 박영자 단장님의 '어울림민속춤', 제가 진행하는 '한국 문화의 향기', 그리고 설원화 강사님의 '한국문화교실1', '한국문화교실2'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구상이 있다면, 비록 다른 공간에서 실시하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KPOP 교실'과 '한국 전통 타악기교실'을 열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인 문화센터의 취지와 장점을 살려서, 한국 문화예술, 문학 관련 수업과 행사로 조금은 활력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무대에서 발표하고 전시하는 시간도 가져 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가자분들이 백신 접종을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 마스크, 손소독, 기침예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집에서 쉬기, 사회적 거리 등, 방역수칙도 잘 지키며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공부하고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 저 모

티몹스크 지역에서 건초 축제 개최

7월의 첫째 일요일에 티몹스크 구역에서 건초 축제가 열렸다. 전통적으로 이 행사는 여름철 주요 행사로서 축제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기술 진보시대에 이 축제는 농촌 노동을 소개하고, 농촌 작업에 사용되는 대형 낫의 여러 용법을 유일하게 보여준다. 7월4일, 크라스나야 팀 마을의 그림 같은 들판은 민속 행사장으로 바뀌었다. 돌돌말린 건초더미, 러시아 전통을 주제로 하는 사진 촬영지, 민속 예술단의 참가 등 모든 것이 민속적 축제 분위기를 증강시켰다.

행사에 귀빈으로 이 지역 시장인 세르게이 라자레브와 부시장 이리나 크라숙이 참석했다.

세르게이 라자레브는 인사말에서 "티몹스크 지역은 근면한 사람들과 농산업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는 농촌의 노동을 널리 알리고, 전통을 보존하며 주민을 단결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축제의 변함없는 경기로는 '폴 베어내기' 대회로서 올해는 티몹스크에 지역에서 우수 건초 장인 11명이 풀베기 경기에 나섰다.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에게 공동으로 30m 풀베기 코스가 주어졌다. 과제는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은 가운데 평가단이 풀베기 솜씨를 평가했다.

축제는 게임, 놀이, 활동교실, 공예 장식품 전시와 판매, 차를 곁들인 야외 음식들, 생선수프와 잘 익은 블린니 등으로 어린 아이들과 성인들에게도 활기차고, 흥미로웠으며 티몹스크에 주민들의 손님 접대와 환호 속에 행사가 성대하게 이뤄졌다고 축제 조직위가 전했다.

Фестиваль сена провели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В первое воскресенье июля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сена. Традиционно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лета и собир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й. Во времена технического прогресса фе-

стиваль, пожалуй, единственный для многих способ увидеть косу в дел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рестьянским трудом.

4 июля живописное поле близ села Красная Тимь на время превратилось в этноплощадку. Сметанное в стога сено, фотозоны традиционно-русской тематики, народные умельцы, участники фольклор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сё это придавало фестивалю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лорит.

Почётными гостями стали мэр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ергей Лазарев и вице-мэр Ирина Красюк.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Сергей Лазарев отметил: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силён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и трудолюбивыми людьми, а такой праздник прославляет труд, сохраняет традиции и объединяет".

Неизменной "фишкой" фестиваля является соревнование по сенокосению.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кос вышли 11 лучших косарей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Мужчинам и женщин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ойти общую дистанцию в 30 метров. Задача — прийти к финишу быстрее всех, но не всё так просто. Судьи также оценивали и качество косыбы.

Нескучно и интересно было как самым маленьким гостям, так и взрослым: игры, забавы, мастер-классы, выставка-продажа изделий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ухн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с ароматным чаем, наваристой ухой и румяными блинами. Всё широко, с размахом и с тымовским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сообщает оргкомитет фестиваля.

Невельск에서 '해안가 정화' 활동에 120명 참가

해마다 '해안가 정화' 전 러시아 활동에 120명 이상이 참가했다. 올해는 2개 지대에서 정화작업이 이뤄졌는데 네벨스크 전 주민들과 이곳 방문자들이 즐겨 찾는 로베츠크 해안과 어린 희생자 추모공원으로부터 바다사자 번식지까지이다.

이 활동의 참가자들은 행정부, 기관, 단체, 기업, 사회단체의 대표들, 네벨스크 주민들과 지역 방문객들이다. 이번 '해안가 정화' 활동에 많은 아동들이 참가한 점은 특별하게 평가할 만한데 이는 어린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 행정부는 행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네벨스크 주민들과 지역 방문객들에게 청결을 유지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В невельской акции "Чистый берег"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20 человек

В ежегодн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Чистый берег"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20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уборка проходила на двух территориях — это излюбленное место всех невельчан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 побережье Ловецка — и участок от сквера памяти погибшим рыбакам до территории лежбища сивучей.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чреждений,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В этот раз в акции "Чистый берег" участвовало много детей, что особенно ценно. Ведь прививать чувств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любовь к природе необходимо с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благодарит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и обращается к невельчана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с просьбой сохранять чистоту и убирать за собой мусор,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невель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еллостимол (자전거 이용 촉진)' 캠페인 지속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계속해서 활발한 자전거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веллостимол' 첫 활동은 봄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은 특별 앱으로 등록하고 자전거를 이용해 다녔던 것을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든,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서 이용하든, 직장으로 타고 다니든 가장 활동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다. 'веллостимол(자전거 이용 촉진)' 활동은 여름철에도 계속할 예정인 가운데 자전거 애호가들은 'велого로드 온라인'사이트로 들어가 등록을 마친 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신의 자전거 여행을 기록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하게 페달을 돌린 행사 참가자가 선물을 받게 되는데 자전거 이용 등록 권장 기간에 한해서 상품을 수여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велого로드 온라인(велогород.online)'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8면에 계속)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북방의 얼〉이 한국어로 출간

1년 전 사할린 역사학자 니콜라이 비시넵스키의 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북방의 얼"이 올레그 쿠즈네초브 중앙도서관의 〈코르카'스〉출판사를 통해 러시아어로 출간됐다. 사할린의 18개 지방 도시 중 하나인 마카로브 지역에 토착인들의 기억과 독특한 비밀고문서 자료들을 토대로 집필한 이 책은 마카로브시 한인들의 역사와 운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마카로브 한인들의 삶의 드라마 같은 순간들과 기쁨에 대해, 동시에 마카로브 구역(모토도마리 군)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중요성은 일련의 문서집, 러시아, 일본의 고문서에서 전에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던 사진이 수록돼 있는 점이다. 또한 이 책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가 개최한 '2020- 올해의 성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점이 이 책의 가치를 실증하는 바다.

비시넵스키 작품에 대한 관심이 사할린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었던 만큼 이책의 한국어 번역본의 출간은 도서관의 출판 기획에 있어 필연적이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시적 이름을 좀더 분명하게 번역하려고 이전에 채택되었던 '신선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하자고 결론지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글 번역을 해주신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직원 이선영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저자가 밝혔다. 그리고 이선영 씨는 외국의 학술적 용어들로서 수많은 특성을 고려해 장안해 낸 용어를 비롯해 창의적으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작품 주인공인 한인 가족들의 도움도 받았다. 출판 편집교정은 새고려신문사의 배 빅토리아 사장이 이 일에 중대한 책임감을 갖고 맡은 가운데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 삭제하기도 했다. 책은 총 300부가 출간되었지만 현재 모국에서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 1세대를 만족시키기엔 아직 충분하다. 그들은 이 책을 알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다.

마카로프 지역 향토 박물관에서 도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북방의 얼"을 얻을 수 있다.
(쿠즈네초브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도서관 자료에서)

올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시작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2019년부터 한국 보건부와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사할린 현장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해 의사, 자원봉사자 등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아니와시를 방문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에 아니와 한인회 이원도 회장의 많이 협조했다.

아니와에는 현재 한인1세대분1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가족 인솔자와 함께 행사장을 1세대 6분이 찾았다. 남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4분의 자택을 의사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할린주한인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 회원들이 찾아 진단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최근에 사할린에서 코로나19 감염 상



황이 또다시 악화되는 가운데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모든 건강보호 수칙을 지켰다. 1세대분들은 이날 공명순 심장병 전문의 겸 내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청년회 회원들(오 블라지미르, 김 알렉산드르)이 진행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혈관계 순환을 돕는 운동 기술, 파라핀 치료 등)에 적극 참여했다.

의료 진료 후 어르신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이들과 함께 노래와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 따르면 올해 한인 1세대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스미르니흐,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 위스토크, 비코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펼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청년회 제공)

2만4천 명의 코로나19 완치자, 정밀 진단 진행

7월 1일, 코로나바이러스를 앓았던 환자에 대한 진료 조사 및 예방 검진 진행 절차에 대한 시행령이 내려졌다. 사할린주에서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할 완치자들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이런 목적으로 연방 의료보험 공단에서 1천300만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사할린주 보건부 진료국 정 밀라 국장은 "사할린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이전 진료 등록에 따라 관찰되어 왔으며 1년간 구역 내과 의사가 이들의 상태를 조사해온 중에 러시아 연방 보건부에서도 때마침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시행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산소포화도, 혈액의 생화학적, 임상적 분석은 필수 연구조사였다. 이 중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연구조사가 시행되었는데 흉부 엑스레이, 시티(CT)촬영, 심장 초음파,

하지혈관 초음파 검사이다."라고 말했다.

첫 검진 명단에 2만4천 명이 오른 가운데 2개 명단이 작성되었다. 하나는 만성질환 한 가지를 지닌 사람들, 둘째는 검사상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다.

완치자들의 1차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2차 검진이 이뤄지며 주치의가 재활에 따른 지시를 내린다.

완치자 중 상태가 심각한 경우 병원 내 또는 요양소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 사할린주에서는 '시네고르스크 미네랄니 워드(광천수)' 요양소에서 치료가 진행된다고 정 밀란 과장이 덧붙였다.

코로나바이러스 경증으로 앓았던 완치자들도 진료를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 러시아의 가족, 사랑, 신뢰의 날

7월 8일은 러시아의 가족과 사랑, 신뢰의 날로 기념한다. 통계는 혈연 및 부부 관계와 생활 공동체, 상호책임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사회적 그룹을 가족을 간주한다.

2020년 사할린주에 혼인이 3393 건으로 인구 1000명 당 7건의 혼인이 성사되었는데 2019년 대비 6%가 감소했다.

혼인 연령은 25세-29세로 남성 23%, 여성 21%가 혼인했다.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정의 생활질서와 안정적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지난해는 유난히 60세 이상의 남성 141명, 여성 102명이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모두가 혼인관계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이혼 건수가 13% 감소했다.

2020년에는 혼인 1000건당 이혼은 727건으로 밝혀졌고, 2019년에는 785건이었다.

지난해 사할린의 출생아는 5천589명(51%)으로 이 중 남아가 2천878명, 여아는 2천711명(49%)

이었으며, 출생아 68%의 대부분이 등록된 혼인관계 속에 태어났다.

출생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토마리, 포로나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이 선두를 차지했다.

2021년 1월 - 5월간 사할린주에 혼인신고는 1천182건, 출생아는 2천234명으로 이 중 남아가 1천95명, 여아가 1천139명이다.

2020년 사할린주에서는 2천258가구에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 중 174가구가 다자녀 가정이고, 청년 가정이 538가구이다.

가정의 구성과 발달에 대한 세부 분석은 인구조사 기간 수집된 정보에 근거했다.

현재 주민신분등록소와 내무부와 이민국의 자료들은 전체 인구수 분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전 러시아 인구조사 이후 러시아의 인구수와 주민 분포도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할린주 통계국

<2021-사할린주의 자랑>경연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초대

이 경연은 해마다 <사할린의 등대> 주지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할린 주지사의 행정기관과 사할린주 정부가 주관한다. 이 경연의 목적은 공공복지 분야에서 사할린 주민들의 공로와 업적을 알리기 위함이다.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7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경연은 5개 부문 - '시민의 자세', '활동적인 장수생활', '훌륭한 부모', '어린 시민', '유명한 사할린 사람' -에서 진행된다.

기획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동물과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자신을 드러내고, 다자녀 부모들과 연금 수급자들을 활동적인 삶으로 인도하며, 사회적 주요 기획들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가자들이다.

'사할린주의 자랑' 경연에는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할린 주민과 자신의 재능이나 특별한 행위와 성취로 사할린을 널리 알린 주민들을 초대한다.

경연 참가 신청서는 이메일gordost2021@sakhalin.gov.ru로 접수되며 다음 단계로 <구베르스키 웨도모스치(지방 소식) (www.skr.su) >사이트에서 전자투표가 진행된다.

제78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공고문

1. 실시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2021년 7월 5일~7월 26일(평일 09:00~17:00)
- 원서 접수 장소: 사할린 한국교육원(전화 505-696)
-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TOPIK1) 800루블, (TOPIK2) 1,000루블
- 원서 접수 시 준비물: 증명사진 2매(3cm×4cm), 응시 수수료, 신분증
- 성적 발표: 2021년 11월 25일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2. 시험 시행

- 시험 일자 : 2021년 10월 17일(일)
- 시험 장소 : 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한인문화센터 내)

사할린한국교육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XX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 — Корея — СНГ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и друзь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приглашает ва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XX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 — Корея — СНГ,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в Москве с 26 по 28 августа 2021 г. под девизом «Thirty Years of Networking in Science!».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Россия),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а «ТИНБО» (Узбекистан) и «КАХАК»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KORUSTEC»,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МДКМ).

Конференция объединяет ученых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с целью обмена уникальным опытом, интерес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идеями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нтактов.

Ежегодно конференция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собирает до 150 человек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у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ленарные доклады и отдельные научные секции проводятся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На 2-х языках выпускается сборник докладов конференции, размещаемый в «Российском индексе научного цитирования» и доступный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на сайте АНТОК. Конференция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помимо научной части, является площадкой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ов. С эксклюзив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бесплатных стажирово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магистратуры, аспирантуры и post-doc на конференцию приезжают руководители ведущих науч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 инженерные науки;
- математик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 биотехнологии и медицина;
- химия и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 физика и науки о земле;
-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стория.

В этом году конференци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смешанном формате: офлайн,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предусмотр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ключения дистанцио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по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и. Рабочие языки конференции — русский и английский. Участие бесплатное.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ференци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на сайте Конференции <https://conf2021.aksts.ru> и прислать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Окончание регистрации и приема докладов 31 июля 2021 г.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Конференции <https://conf2021.aksts.ru>

Вопросы об участии в Конференции можно присылать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Оргкомитета AKSTRussia@gmail.com

Ждем Вас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2021 года

- — Проект «АНТОК-Стартап» (июнь-август) <https://aksts.ru/2021/06/24/aksts-startup-2021/>
- — XX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26-28 августа)
- — Конкурс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август) <https://aksts.ru/2021/06/22/anonce-best-young-scientist-2021/>
- — Олимпиада по математике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ентябрь) <https://aksts.ru/2021/06/07/announcement-olymp-aksts-2021/>
- — Молодежный научный форум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октябрь)
- —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Москве (ноябрь) <https://conf2021.aksts.ru/>

Комментарий АНТОК: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ряд проектов 2021 года,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личностны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Состав и содержание проектов охватывают широкий круг интересов и участник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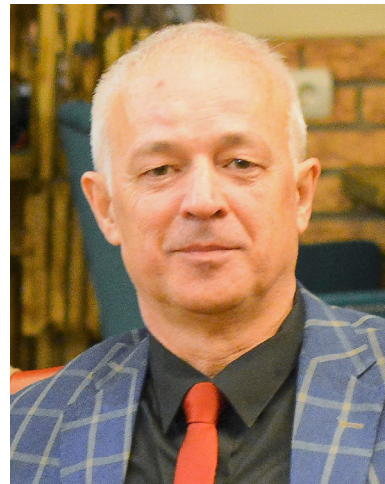
Для школьников 5-9 классов интересной может быть Олимпиада по математике, уже второй год проводимая в сентябре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традиционно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собирает уче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нженер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интересными идеям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тран СНГ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этом году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водится в офлайн формате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частия.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в октябре и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Москве в ноябре —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тудентов и аспирантов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курсовые, выпускные и други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работы в комфортной друж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завести новые знакомства и послушать интересных приглашенных докладчиков. Конкурс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водится в трех номинациях —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Лучший молодой ученый года» и «Лучший специалист года». Заявки на конкурс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августа 2021 года.

Книга «Северная частица Страны утреннего спокойствия» вышл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Год назад кни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торика Николая Вишневого «Северная частица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вышл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КорКиС» при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О.П. Кузнецова. Книга, посвященная истории и судьбам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дного из 18 сахалинск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снована на уникальных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ах и воспоминаниях старожилов. О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радостных и драматических моментах из жизни макар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истории уезда Мотодомари —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 Макар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ажную ее часть составили некогда ранее не публиковавшиеся фотографии из архивов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и частных коллекций. Одним из показателей ее качества стала победа в конкурсе «Успех года-2020»,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явление книги-«близнец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тало логич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изда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библиотеки, поскольку интерес к работе Николая Вишневого проявил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но и за рубежом.

— В процессе работы над книгой м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в более точном переводе поэтическое название Кореи звучит не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как это принято), а Страна утреннего спокойствия, — отметил автор. — Огромну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выражаю сотрудн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нёнг И, которая безвозмездно, в свободное



от работы время выполняла перевод текст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ичем делала это творчески, с учетом множественности необычных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терминов, в том числ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мощь оказа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ставших героями повествования. Редактором издания выступила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которая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дошла к работе, устраняя неточности. Книга вышла тиражом в 300 экземпляров, но этого пока будет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порадова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Они знают об этой книге и ждут ее.

Отметим, что история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д пером Николая Вишневого нашла многовекторное отражение. Имеется в виду трилогия сборников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очерк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ахалина», «Тихая гавань



Карафуту» и «Под флагами СССР и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убликац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познавательном журнале «Слово» исследования «Транссахалинская магистраль», посвященного истор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лавной островной магистрали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А дополненное автором переиздание сборника «Сиритор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к малоизвестному факту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этап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иблизить миг победы в августе 1945-го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могло заключ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советским и японским командованием в Сиритору, как ранее назывался г. Макаров.

Желающие приобрести книгу «Северная частица Страны утреннего спокойствия»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Макаров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сообщили в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О.П. Кузнецова..

В РК около 16 млн пользователей 5G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К,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1 июля, в конце мая эт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15 млн 840 тыс. пользователей 5G, что составляет 22% абонентов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которы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71 млн 450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всего абонентов 5G у ведущего оператора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SK Telecom — 7 млн 390 тыс. Далее следуют KT — 4 млн 800 тыс. и LG Uplus — 3 млн 600 тыс. Операторы связи стремятся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услуг, работая над обеспечением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охвата к концу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ни также тестируют связь 5G в диапазоне 28 гигагерц, что теоретически позволяет повысить скорость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в 20 раз по сравнению с 4G LTE. Скорость загрузки в 5G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а примерно в 4 раза выше, чем в 4G LTE.

Количество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в РК сократилось до минимума

Количество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упало в Р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о нового рекордного минимума, поскольку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использование наличных денег продолжает сокращаться. Как сообщили 6 июля в Банке Кореи,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июнь обнаружено 38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что более чем в 4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2000 года, когда Банк Кореи начал публиков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анные.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подделок пришлось на купюры достоинством 5 тыс. вон — 22. Выявлены также 8 купюр достоинством 10 тыс. вон и 4 купюры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50 тыс. вон.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призывает продолж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оддержку мирных усили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еул призывает продолж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оддержку усилий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прочного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хве Чжон Мун, выступая 5 июля на совещании министров Стокгольм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по ядерному разоружению,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Чхве Чжон Мун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ам совещания об усилия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Он подтверд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креп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ежима ядерног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построения мира, свободного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совещ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дипломаты из 16 стран, не обладающих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Оно состоялось в преддверии конференции по рассмотрению действия Договора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иуроченной к 50-летию вступления договора в силу.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гонк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опередил бывше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Юн Сок Ёля в гонк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страны.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Global Research с 30 июня по 2 июля среди 1 тыс. жителей РК старше 18 лет, в поддержку Ли Чжэ Мёна высказались 44,7%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 Юн Сок Ёля готовы проголосовать 36,7%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Разница в 8% превышает пределы погрешности. Она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Оба кандидат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и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2022 года.

В Сеуле запретили распитие алкоголя в парках

С 7 июля мэрия Сеула ввела запрет на распитие алкоголя в парках вдоль реки Ханган с 10 часов вечера до 5 часов утра. Данные меры приняты в рамках ужесточ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 связи с всплеском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COVID-19. В мэрии Сеула также сообщили,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ый запрет не имеет определённого срока. Аналогичные меры уже приняты в 25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арках столицы с 6 июля. Нарушителю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прекратить распитие алкоголя, а в случае не выполнения требования следует наказание в виде штрафа. Размер штрафа 100 тыс. вон или примерно 88 долларов. Если нарушение приведёт к заражению COVID-19,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могут потребовать компенсац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затрат на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е меры.

Операционная прибыль Samsung Electronics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выросла на 53,4%

7 июля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опубликовал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рогноз сво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за второй квартал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Операционная прибыль оценивается в 12 трлн 500 млрд вон (10 млрд 991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53,4% больше, чем в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гнозируемый объём продаж за период с апреля по июнь составляет 63 трлн вон (55 млрд 399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на 18,94%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Рост показателей Samsung Electronics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ый бизнес компании компенсирует не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в мобильном сегменте.

Начал вещ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леканал KBS KOREA

1 июля начал работу обновлё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леканал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KBS KOREA, который пришёл на смену существовавшему ранее телеканалу KBS World 24. Программа KBS KOREA включае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и другие контенты телеканала KBS1, а также ряд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передач. Они транслируются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лучают акт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жителями РК. Кроме того, в программе канала передачи о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стории Кореи, контенты для детей. KBS KOREA доступен на таких платформах как спутниковое телевидение, IPTV, OTT и YouTube. Канал также транслирует DirecTV,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овайдер спутниковых услуг прямого эфира. Если передачи канала KBS WORLD 24 можно было принимать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ую спутниковую связь или сети Интернет в США, Европе и Африке, то передачи KBS KOREA доступны также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Аз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мерике. Благодаря соглашению, подписанному с оператором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 KT SAT, они доступны экипажам судов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Передачи транслируются через спутник Migungwha 5A,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морской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 По слова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KBS WORLD Квон О Хуна, все любимые программы южнокорейцев сейчас доступны в любом уголке планеты. Он добавил, что KBS KOREA может стать любимым телеканалом корейцев всего мира. (RKI)

КНДР покинули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состава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Пхеньян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на днях выехал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вершив работу в Пхеньян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зарубежные СМИ, а затем подтвердило и посольство РФ.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удалось уточнить подробности данного отъезда, которое привело к вынужденному снижению дипприсутствия РФ в КНДР, где действуют жесточайши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Информацию о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м выезде на родину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состава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сообщило сначала англоязычное издание NK News, предположив, что покинут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т половины до двух третей" всех тех, кто проживал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осольства РФ (дипломаты, техсостав, их семьи). Было также отмечено,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екратит работу и школа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Ф в КНДР. 2 июля япон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Киодо", ссылаясь на слова очевидцев, сказала, что в расположенную на границе с КНДР российскую станцию Хасан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был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состав из локомотива и трех вагонов.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всего было "около 90 пассажиров".

Позже посольство РФ в Пхеньяне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соцсети Facebook подтвердило факт отъезда коллег, разместив и фотографии с церемонии прощания. "2 июля на родину вернулись многие наши коллеги и друзья - те, кто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 том числе в эти непростые коронавирусные времена, вместе с нами трудились в российских загранучреждениях в КНДР. Поскольку в условиях строг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установленной руковод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ее границы на въезд строго-настроено закрыты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отация персонала вот уже почти два года не производится, все, у кого закончились контракты,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Уехали несколько дипломатов, врачей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

но-техн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закрылись школа и детский сад... В русском городке,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самом центре Пхеньяна, стало гораздо тише. Однако работ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и не прекратилась",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о своим каналам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удалось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словам осведомле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всего выехали 88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84 были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а еще четверо - граждане Индии. Из россиян 81 были теми, кто работал в посольстве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а еще трое - российские сотрудники совместного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Расонконтранс", чей офис расположен в порту КНДР Раджин.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посольстве РФ было немногим более 150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выехало чуть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Причина для эвакуации и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проста. КНДР с начала 2020 года и до сих пор сохраняет крайне жестки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т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 страну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Страна полностью самоизолировалась. Власти КНДР не пускают к себе вообще никого из зарубежья и крайне в ограниченных количествах ввозят импортные грузы. Также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покину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Базовы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в КНДР есть, н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ассортимента либо исчезла, либо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дорожала. Касается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мпортной продукции. Также ощущается сильная нехватка медицинских препара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каких-либо проблем со здоровьем у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НДР иностранцев, они вряд л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адлежащую медпомощь или быстро выехать за рубеж. Жизнь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условиях постоянной изоляции также очень непроста. Все это и стало причиной для выезда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сотрудников и их родных без замен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Семеро из десяти студентов не хотят возвращаться в аудитории

Большинство студент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сейчас предпочитают занятия онлайн, чем посещать аудитори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опроса.

В опросе 2 987 старшекурс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роведенном студенческим совет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Yonsei, семь из десяти респон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предпочитают «бесконтактные» лекции». 42 процента сказали, что не хотели бы вновь ходить в аудитории, а 27 процентов хотели бы сочетать бесконтактную учебу с семинарами с количеством студентов, не превышающим 30. Лишь 31 процент высказался за традиционное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Многие студенты признали бесконтактные лекции очень эффективными, поскольку они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них с любого места и даже повторять, если они в записи.

Другие студенты считают, что они могут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профессорами более свободно онлайн. Один выпускник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ула сказал: «Иногда не хватает смелости поднять руку и задать вопрос в большой аудитории, гораздо проще напечатать

вопросы в мессенджере во время лекции онлайн».

Другим преимуществом бесконтактных лекций стало то, что студенты могут экономить время и деньги.

«Я сэкономил около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необходимости аренды комнаты и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оставаясь с м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в Тэгу полтора года», – сказал Ким Чжун Ён, студ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ула (US\$1 = W1 115). – «Я истратил эти деньги на покупку книг и еще немного осталось».

Ким Кун Чан, студент университета Hanyang, сказал: «У меня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ьше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ся на учебе, поскольку отп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одить много времени в переполненном метро каждое утро».

Другим фактором стало то, что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люди не вакцинированы. Ли Су Чжин, студент университета Yonsei сказал: «Многие учебные аудитории слабо вентилируются и вызывает опасения находиться в них при скоплении студентов, большинство которых не вакцинированы».

ИА РУСКОР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ло 24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ереболевши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ройдут углубленную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тоды диагностики позволяют своевременно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остковидные осложнения. Пройти углубленный медосмотр можно во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ах региона с 1 июля.

– В обязатель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переболел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ходят сатурация кислорода и биохимический анализ крови. Если выявляются серьезные изменения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человека, ему назначают рентгенографию и компьютерную томографию органов грудной клетки, УЗИ сердца и сосудов нижних конечностей, – рассказала Мила Тен, директор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Сейчас сформированы списки пациентов, перенесших опасную болезнь.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я им предложат ле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или страхов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т тем, кто имеет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Всем прошедшим углубленную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дадут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у лечению. Оно возможно как в стационаре амбулатор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звена, так и в санатории.

Напомним, программа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циентов, перенесших новую коронавирусную инфекцию, действу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 сентября 2020 года на базе санатория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оддержано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углубленную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выделены целевые финансовые средства в размере 13 млн. рублей.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ручил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запуст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развитию системы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рассчитанную до 2026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На эти цели планируется выделить до 100 млрд. рублей.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запущен туристический чартер по маршруту Москва - Сахалин

Самолеты крупнейш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туроператора TUI Россия будут летать на остров еженедельно. 4 июля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приземлился перв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чартер из Москвы. В честь знакового дл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и все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бытия по традиции аэропорта во время руления к месту стоянки самолет прошел через водяную арку.

Запуск чартерных рейсов на Сахалин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роведенная Федераль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туризм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им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пании TUI Россия. Главная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сделать путешествия на Сахалин доступнее для россиян.

– Сахалин – сильный бренд, ярк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магнит и место, которое мечтают посетить тысячи туристов. Чар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может это сделать. У туристов, прибывающих чартером на Сахалин, буду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тить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Это позволяет широкая сеть морского и авиацио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которая создается в регион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к 13 чартерных рейсов авиакомпании ifly Airlines на воздушных судах вместимостью 34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по маршруту Моск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Москва.

– Сегодняшним бортом прилетело более 250 пассажир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 туристы. Также первым рейсом прибыли участники инфотура из числа турагентов наших розничных партнеров, которые в начале самой программы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ее содержанием, особенностями и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 уж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туристам. Они должны увидеть Сахалин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и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эмоционально красоту региона,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TUI Россия Александр Сирченко.

Всего при участии островного турбизнеса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сайте туроператора тр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граммы «Привет Сахалин!» в формате «Лайт», «Стандарт» и «Макс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туров – 7 ночей/8 дней, они включают перелет, проживание, трансфер и экскурсии по программе.

–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к нам зашли чартеры федерального туроператора. Мы уверены, что направление буд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Сахалин уже вызывает интерес у туристов и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такими объектами как маяк Анива, бухта Тихая, мыс Птичий (Великан). Но не все понимали, как сюда попасть, сколько это стоит. Поэтому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готовый, понятный и доступный продукт,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разный ценовой сегмент. Впереди у нас ещё много работы по улучшению сервиса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о уже есть первые шаги к этому,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Ромашевский.

В минимальный пакет «Лайт» помимо перелета и проживания включена обзорная экскурсия по городу и вечерняя в с. Пригородное, где можно полюбоваться красивой панорамой и посетить рынок морепродукто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туристы могут спланиров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ли приобре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слуги из предложений туроператора. В программы «Стандарт» и «Макси» уже входит расширенный перечень экскурсий по знаковым местам Сахалина.

– Благодаря сформированным пакетным предложениям нам удалось снизить стоимость поездки на один из самых красивых островов России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Наша чар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доступнее и дешевле поездки в отдаленные от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регионы, которые имеют большо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едложить нашим туристам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своих путешествий по стране, разнообразить форматы отдыха. И, конечно, Сахалин – одно из та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у которого огром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туризма Зарина Догузова.

Министр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ановится ближе. Сахалин – второй регион ДФО, куда запущена чар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Год назад первый чартер приземлил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Сейчас там работает уже третья чар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Главное – чартеры существенно удешевляют стоимость комплекс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отдыхающих. А значит путешествия к самым восточным территориям страны с их первозданной природой, удивительной кухней и традициями будут доступнее и смогут выигрывать в конкурентной борьбе с заграничными курортами. Кроме этого, сейчас формируются туры по маршрутам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эшбек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сделать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ещё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и доступными.

Как отм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TUI Россия, если летняя чар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эффективно реализована, т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устить другие сезонные продукты. В зимнее время акцент будет сделан на горнолыжные тур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ил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 Курильске

Перед встречей с жителями района губернатор вручил статуетки обладателям премии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отличившимся курильчанам.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ый педагог»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Анастасия Берил. Специалист уже много лет организует внеуроч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казывает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дет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занимается с родителями учени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Еще одну статуетку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руч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ю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Гидрострой» Николаю Зотову. Предприятие стало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 год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за многолетний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получили:

- Любовь Бородина, врач психиатр-нарколог Курильской ЦРБ;
- Татьяна Позычайло, учитель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средней школы Курильска;
- Надежда Эсиган, фельдшер-лаборант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ФБУЗ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ергей Есаулов, столяр-станочник МУП «Жилкомсервис»;
-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тренер МБУ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 Тибор Ормош,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0» объединила людей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 учителей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рачей и спортсменов, волонтеров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молодежных активистов.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овали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но и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сег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определены 59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и 119 лауреатов.

Дорогу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Синегорском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2 июля на объект выех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автодора. Специалисты оценили состояние дорожного покрытия и обозначили сроки устранения недочетов. Участок принят в обл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 1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 Грунтовый участок автодороги почти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не имеет щебеночного покрытия. Поэтому из-за дождей размытыми оказались 3 глинистых участка трассы. Их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сразу же, как только это позволят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начала работ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покрытие подсохло, – рассказа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 Дорожники выполнят отсыпку щебнем и проведут грейдирование. Это обеспечит защиту участков от осадков, а также сделает передвижение по ним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Полностью работы планируются завершить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атериалы,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технику подрядчик уже подготовил.

Кроме того, до конца июля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кюветов на участках с необеспеченным водоотводом.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работа подрядчика, который обслуживает дорогу. Как минимум 4 раза в месяц организация обязана проводить грейдирование трассы. На

участках с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м покрытием производится уборка с применением поливомоечных машин. Состояние участка проверяет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Сахалинавтодора не реже 2-х раз в неделю. За некач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подрядчику грозят штрафы – от 50 д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дороги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 вопрос о стабилизации грунт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инеральных и полиме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Это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ология,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укрепить основание участка и сделать его более устойчивым к дождю. Благодаря её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будет решена проблема дорожной пыли.

В перспективе –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трассы. Ранее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проект 1 этап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инегорск. Длина участка – 7,9 километра. Предлагается уложить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обустроить тротуары и дренажную систему, построить автобусные остановки и установить освещ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 в связи с переводом дороги в регион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 взята в работу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едлож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участка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для включения в проект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ледующие годы.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Стимул мечты - это сам ты»

Всероссийская интернет-акция приурочена ко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по борьбе с наркоманией.

Акция проходит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флешмоба.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выложить в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посты, сторис или короткие видеоролики с рассказом о том, что является для них стимулом жизни и почему они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наркотиков. При этом необходимо обязательно указать хештеги #Стимуломоемечты, #Противнаркотиков.

Главная цель акции –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к проблеме употребления наркот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психоактивных веществ,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о негативном воздействии наркотиков на здоровь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Также в рамках акции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видеороликов антинарк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Для участия в нем необходимо снять видеоролик о позитивной альтернативе употреблению наркотиков, опубликовать его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через систему АИС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Стимул мечты — это сам ты», прикрепив ссылку на размещенный видеоролик в анкете участника. Оценивать работы будут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в ее состав вой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молодежи, МВД России, а также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выбраны трое победителей. Он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й основ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заезде «Вкусный джаз»,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период с 6 по 13 августа на базе Арт-кластера «Таврид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Арт-школа фото-и видеоконтента».

Темпы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регионе остаются стабильно высоким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перед областным регионом стоит задача расширить количество койко-мест для стационарного лечени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для лечения больных COVID-19 в области развернуто 683 койки – в Корсаковской, Долинской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ах, в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м корпус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ткрыть стационар в Аниве. Лаборато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на базе 4 лабораторий.

– Важно не упустить развитие патологии у пациента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нфекция опасна стремительным течением и важно зафиксировать момент, когда человеку потребуется кислородная поддержка. Для оказания такой помощи необходимо наращивать количество профильных коек.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может только снижение числа больных и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 рассказала врач-инфекционист Оксана Солонина.

– Сахалин по-прежнему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ом-лидером по темпам вакцинации, –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 Сегодня за сутки вакцинируются до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апасом вакцины область обеспечена в достаточном объеме. Если продолжатся такие темпы вакцинации, – к середине августа мы планируем выйти на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Мы не хотим прибегать к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м мерам, поэтому призываем жителей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вивку против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житель старше 18 л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иммунизации граждан старше 60 лет.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а также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МегаБерёзка», «Столица», «Сити-Молл»,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передвижном пункте в парке Гагарина. В районах прививочные кабинеты работают во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ах. График работы передвижных пунктов вакцинации размещен в соцсетях и на сайтах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모셔올 중장기 로드맵 짚시다"

황동준 前행안부 과장, 봉환 운동 추진
남태평양 섬 유해, 코로나로 입국 막혀
중국 천인갱 1000여구 개발되면 사라져
"미귀환 희생자 · 유족 실질적 지원 필요"



▲ 황동준 전 행정안전부 강제 동원 희생자유해봉환과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이 중단됐지만, 유해 봉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 격전지와 중국 등지로 강제동원됐다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유해 봉송환 운동을 벌이는 황동준 전 행정안전부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어렵사리 신원이 확인된 유해마저 코로나19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 판결이 사회적 이슈가 된 관심만큼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과장은 "남태평양 타라와섬에서 어렵게 찾은 최병연 씨의 경우 유전자 감식을 통해 유족을 찾아 지난해 국내로 유해를 봉환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이 금지돼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강제동원된 연인원 125만여 명 중 20만여 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위파라도 돌아온 희생자는 1만 2000여 명뿐이다. 그는 "2019년 중국 하이난성 쑤아시에 있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집단 매장지 '천인갱'을 찾았을 때 1000여구의 유골이 묻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은 저의 운명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당시 천인갱에서 '제가 반드시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눈물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황 전 과장은 "그동안 중국 하이난성, 태평양 격전지, 일본 조세이 탄광 등지에서 유해 조사 및 발굴 시도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며 "국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도 국내에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까지 멈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올 1월 시행된 사할린동포특별법과 관련, 그는 "사할린 동포 피해구제 및 유해 발굴·봉환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지만 현지 500여 명의 1세대와 3만여명 동포들의 간절한 염원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사할린뿐 아니라 태평양 등지로 끌려갔다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천인갱 유골은 지역 개발을 핑계로 언제 파헤쳐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 사할 등지에 흩어져 있는 수천 위의 유해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활한 유해 봉환을 위해 진행 중이던 한러 정부 간 협정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황 전 과장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해는 훼손되지 않고 봉환돼야 한다"며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 봉환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신문, 2021.06.30)

재외동포재단, 차세대단체와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 개최

- 6월 21일, 23일, 30일 3차례 나누어
지역별 화상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차세대 단체 주요현안 협의 및 차세대사업 활성화 방안 청취를 위한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를 차세대단체장들과 6.21.(월), 6.23.(수), 6.30.(수) 각각 개최했다.

차세대단체 '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는 지역별 시차를 감안하여 3차례 개최하였으며 17개 단체 19명의 차세대단체장이 참석했다.

차세대단체장들은 우수 활동사례 공유, 지역별 차세대 인재발굴을 위한 의견 제시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차세대가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곤 이사장은, "차세대 동포들은 이미 충분한 세계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발휘하여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재단은 차세대 인재육성 및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Комиссия минздрава области провела проверку в ковидном госпита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водом для нее стали жалобы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там лечени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2 июля в ковидный госпиталь, развернутый на базе бывшей гинеколог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ехала комиссия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ладимиром Кузнецовым.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ерили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пациентам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а также условия их пребывания в стационар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наличию медикаментов, кислородных концентраторов, питания, состоянию душевых и туалетных комнат.

— Часть факт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дтвердилась. Многие сложности возникли из-за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оступивших накануне пациентов.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арушена часть вопросов по маршрутизаци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лекарствами, расход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средствам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одеялами, водой люди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ы,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 Ковидный госпиталь разворачивали в экстренном режиме — буквально за три дня. Количество пациентов увеличилось от 35 до 70. Есть, конечно, недостатки. Мы даже кровати еще не успели завести, сейчас срочно решаем эту проблему.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устранена проблема отсутствия холодной воды в одной из душевых комнат, починят сантехнику,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заменят окно,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Еще один важный итог визита комиссии — будет увеличен штат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фактам выявленных нарушений назначена служебная проверка. По ее результатам будут сдел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решения. Ситуацию на личном контроле держит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бился ежедневн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Охой и Хабаровском

С просьбой улучш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период отпусков к губернатору ранее обратились жители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острова. Частота полетов между Охой и материком увеличится с 30 июля.

— Оха расположена далеко от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этому требу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в транспортном вопросе. В период отпусков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жители района могли свобод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и обратно. Причем в удобное для них время. Для

этого многое уже сделано — с начала июля мы увеличили число рейсов с 2 до 4 в неделю. Рад сообщить, что скоро полеты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ежедневн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величить частоту рейсов позволи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губернатора на уров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и условий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и выделени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авиaperевозки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летать в города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новым маршрутам и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Проектом правил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авиаперевозок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выполнение рейсов по 20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Оха — Хабаровск, Ноглики — Хабаровск, Шахтерск — Хабаров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оветская Гаван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расноярск.

Цена на рейс из Охи в Хабаровск не изменится — 5,8 тысячи рублей.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а в Хабаровск из Ноглик составит 4,5 тысячи рублей, из Шахтерска — 4,6 тысячи.

Цена перелетов из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составит 5,6 тысячи, в Советскую Гавань — 2,2 тысячи,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 4,6 тысячи рублей. Билет в Красноярск обойдется в 9,8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ращивают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и развивают сеть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Вопрос о формировании стоимости на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в магазинах был поднят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ряд решений по сдерживанию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и торговыми сетями, выдали субсиди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конеч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закупку по высоким ценам сырья, затем ввели в сфере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повышенные таможенные пошлины. Так что в целом на это, конечно, государство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еняют различ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в создании условий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конкурентной среды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 рынке и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зволяет сдерживать цены.

— Наши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сеть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где применяется минимальная торговая наценка не более 15 процентов. Такие торговые точки сейчас работают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их около 130, в том числе 33 расположены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у-

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ивает бизнес, готовый выезжать со своей продукцией в районы и в села, субсидируя затр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лавок. Все эти форматы востребованы у жителей и здесь реализуется уже четвер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области. В 17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на торговля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ой,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приобрести доступный и качественный товар.

Вместе с тем масштаб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регионе оказывают и местным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В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е — это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элитных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семян трав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на уголь и газ, на повышение плодородия почв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Животноводам субсидируют затр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мбикормов, а также затраты, связанные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и реализацией. В рамках техническ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отрасл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убсидируются затраты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Крестьянским (фермерским) хозяйствам, а такж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м кооперативам, помимо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х видов господдержк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гранты «Агростартап», на развитие семейны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ферм.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21»

Проект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и куриру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ль конкурса — признание достижений и заслуг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социальн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сферах. Стать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30 июля.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по пяти номинациям: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Выдающийся родитель», «Юный гражданин»,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могут стать проявившие себя при спасении людей и животных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едущие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пенсионеры, многодетные родители, участвующ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ах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Также соперничать за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став успешными и узнаваемыми, прославили регион своим талантом, достижением или необычным поступком.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gordost2021@sakhalin.gov.ru.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проекта станет голосование на сайте «ИД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www.skr.s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Акция «Велостимул»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ют стимулировать активных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Первая акция "Велостимул" была запущена весной.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лага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специа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и фиксировать заезды на велосипеде. Самые активные получили подарки за то, что просто катались на велике или использовали его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у другим видам транспорта, например, ездили на нем на работу.

Акция "Велостимул" продолжается, теперь в летнем формате. Любители двухколес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на платформе велогород.online могут фиксировать свои заезды с 1 июля по 31 августа.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о крутившие педали, получают подарки. Это тот случай, когда "накрутка" только поощряется.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нформацией о велодвиже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ожно на сайте велогород.online.

사할린에서 70만 루블리 때문에 남성 구속

자신의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한 포로나이스크 주민이 10일간 수감되었다. 이 남성은 거액의 양육비 체납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집행관들이 사할린 남성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 주민은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 양육을 위한 수입의 1/4을 지급해야 했지만 완고하게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재판의 결정을 무시하여 70만 루블리 이상의 양육비가 체납되었다. 집행관은 이 포로나이스크 남성의 수입과 재산

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으나 태만한 아버지에게서 재산이나 저축이나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남성은 어떤 수익을 얻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한 소득의 25%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정식 취업도 거부했다. 피부양자에게 양육비 지급 회피는 행정사건으로 처리되어 이 남성은 피의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집행관은 남성에게 앞으로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는 경고를 했다.

Из-за 7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арестовали мужчину

На 10 суток за решетку отправили жителя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й отказывался обеспечивать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Мужчина накопил гигантский долг по алиментам и получил наказание.

Санкций для сахалинца добились судебные приставы.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должен был выплачивать четверть до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своего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его ребенка, но упорно не хотел этого делать. Игнорируя решение суда, он накопил задолженность на сумму больше 70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ставы проверили данные об имуществе и счетах поронайца, но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взять с него нечего: ни сбережений, ни собственности у нерадивого отца не было. Кроме того, мужчина отказывался устрои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иметь хоть какой-то доход и перечислять 25% от него на содержание ребенка.

Уклонение от уплаты алиментов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сахалинец стал фигурант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дела и получил наказание. Его арестовали на 10 суток. Кроме того, мужчину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дальнейшее игнорирование родительск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обернется уголовным делом.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НИМ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одит сбор подпис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ое поколение), чьи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не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возможностью репатри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о принятия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бор подписей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12 июля по 31 августа 2021 г.

Дни приема: вторник и четверг с 11.00 до 17.00 (перерыв на обед с 13.00 до 14.00)

РООСК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клама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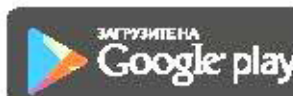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